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소라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며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에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증가하는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최소 1명 이상의 정책지원관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살피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